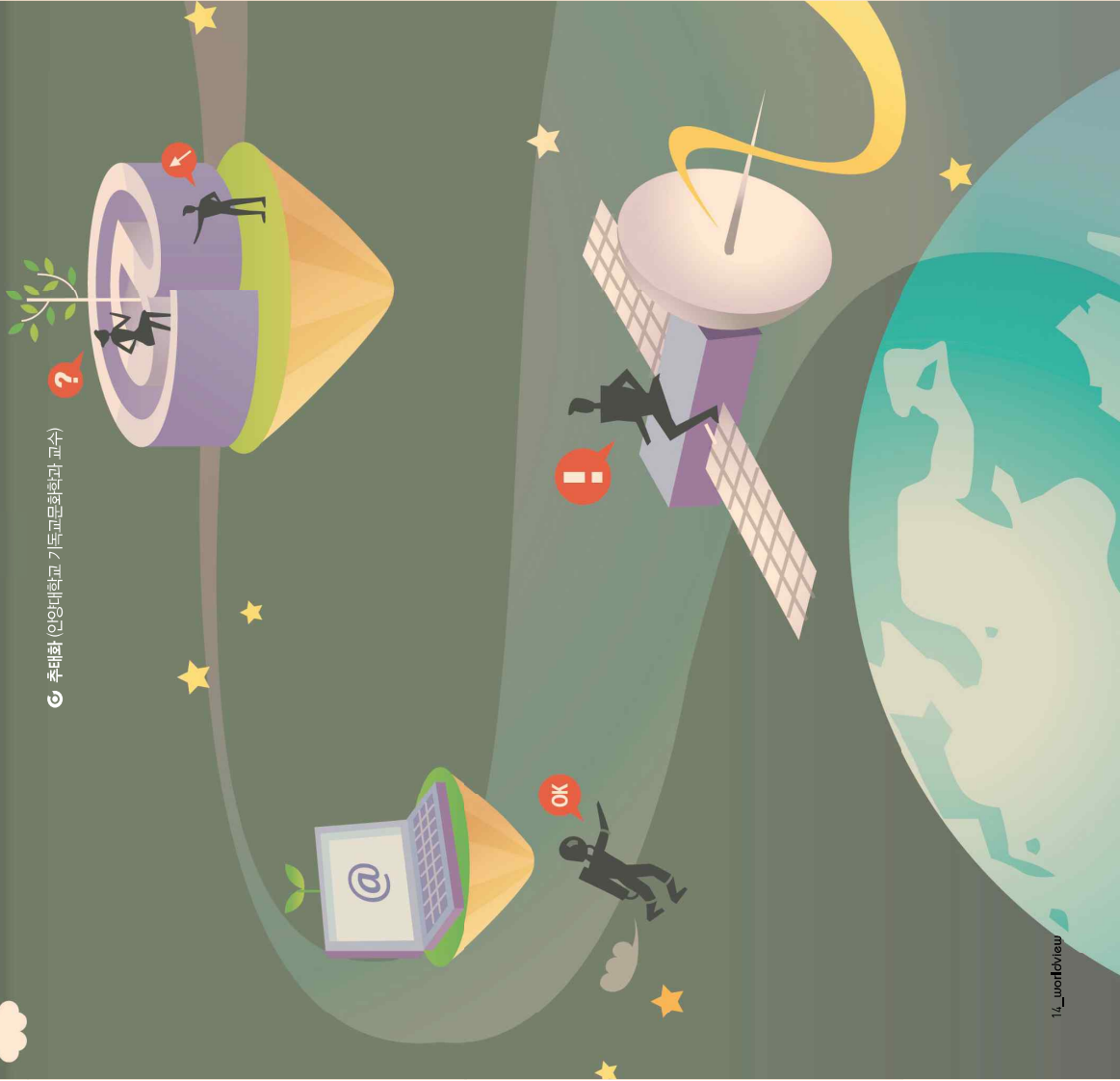


# 왜 다시 상상력인가?!!

## -기록된 상상력을 위한 변명-

6 추태환 (인양내원고 기독교문화과 교수)



### 문제는 분별력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 “문제는 ... 이다”가 그것이다. “문제는 정치다”, “문제는 경제다”, “문제는 안진불감증이다”, “문제는 과육이다”, “문제는 소통부재다” 등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이들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문장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문제는 무엇인가?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은 정체성(identity)의 혼란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다중적 인격이 난장판을 치고 있는 세태, 남성과 여성이 유니섹스라는 미명 하에, 기호와 인권이라는 주장 하에 고유의 아름다움을 잃어가 는 시대. 여러 종교가 뒤죽박죽 혼합양상에 접어들고 진리와 비진리가 허구에서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듯 그렇게 뒤섞이고 있는 영적 상황. 누대와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슬금슬금 기어들이어 오려는 미혹의 시대. 무엇이 문 제일까? 이렇게 답해야 할 것 같다. “문제는 분별력이 다.” 그렇다. 이 어지러운 세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 다(골 12:2). 어두운 숲에서 살아나가려면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방향을 분별하지 못하면 늪에 빠질 수도,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다. 시대정신(zeitgeist)의 미명에서 살아나오려면 진리로 옷 입은 분별력을 갖 추어야 한다.

### 춤추는 상상력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을까. 그동안 안 발전과 진보를 추구해 온 인류는 이제 오히려 가치관의 무중력 상태에 진입해 중심을 잃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여기서 상상력에 말을 걸어본다. “문제는 상상력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상상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상상력이 문제라는 말이다. 우리의 화제는 이 문제를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일찍이 인간의 도구화를 경고한 이들이 있었다. 1980년 대 결성된 독일의 프랑크푸르크 학파는 이성의 도구화를 간파했다. 인간의 이성으로 계몽이 시작되었고, 계몽

주의 운동이 인간을 허망한 이데올로기와 이념의 억압, 미명에서 해방시켰지만, 세월이 지나고 이제 이성은 목 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 든 이성이 오히려 인간을 비인간화하는데 악용되기에 이르렀다. 인간의 비극적 한계상황이다.

상상력 역시 이성의 길을 걸었다. 상상력은 인간으로 하여금 꿈꾸게 하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비전을 갖게 하여 지치 퇴보할 수 있는 문명과 역사를 앞으로 나아가 게 만들었다. 인류 문명을 녹슬지 않게 하는 윤활유 가 바로 상상력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능력이 도구 화, 왜곡, 사유화되더니 끝내는 사악하고 천박한 유희 을 부추기는 죄의 길로 접어들었다. 현재 이곳저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범람하는 상상력에서 찾을 수 있다. 17세기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로 인식의 시대를 열었다면, 문화 홍수 시대인 오늘날은 “나는 상상한다, 고로 나는 존재 한다” 또는 “나는 상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대 세가 되었다.

그렇다면 모든 상상력이 정당하고 합당한 것일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 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고전 6:23) 그렇다. 오늘날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 는 시대이다. 상상이 도발적이건 퇴폐적이건 상관하지 않는다. 인권이자 자유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바로 그 점이 문제이다. 모든 상상이 가하나 모두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상상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상상력은 사람 안에서 나오고 사람에게로 들어간다. 상상력이 난무하고, 상상력이 뿜뿜나옴과 결탁되어 있다. 상상력이 좌악 된 마음 안에 있는 것과 섞일 때 상상력은 가공할 요물이 된다(마 15:19). 그래서 상상력은 구원 받아야 한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 (baptized imagination, R. Lyken) 상상력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구원의 기쁨, 진정한 평화와 공의를 누리며 하 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다.

### 하나님 형상으로서 상상력

성경은 인간 존재에 대해 결정적 단언을 내린 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homo imago Dei)이 라는 것이다. 이보다 더 인권을 높여주는 증 거가 또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유 사한 속성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만물을 그 분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창 1:27, 28).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창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만물의 주인이다’ 라고 표현하였다.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바 로 상상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상력은 은 혜의 일부, 즉 하나님의 선물로서 사람의 사 람됨에 포함되어 있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꿈꾸고 이상을 현실화 한다. 상상력이 내재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 다. 상상력은 창조 당시 인간에게 부여된 신 기한 능력 중 하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 하심이라.”(개역개정, 시 139:14)

그래서 모든 사람은 상상력을 소유하고 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상 상력을 활용할 수 있다. 상상력은 인간의 잠재능력 중 하나이다. 나 야가 상상력은 인간의 창조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예 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바꿔 본다면 어떤까. ‘내 아버지께서 상상하시니 나도 상상한다.’ 어떤 신학자는 ‘창조는 하나 님의 상상’이라고 표현하였다. 하나님이 우주를 상상하시니 우주가 생기고, 해와 달을 상상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곧 그렇게 성취되었 다는 해석이다. 상상은 신적 능력의 표상이다.

상상은 단순한 공상(fancy)이 아니라 의지와 인격의 표현이다. 상상 력은 전인격의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상상력은 뇌의 기계적 기 능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상상력은 이성과 감성 을 연결하고, 내면과 외부를 통합하므로 새로운 세계를 창출하도록 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발단이다. 이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롬 4:17)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대한 공유에서 기인한다. 상상력은 신적 관능의 유비(analogia)로 이해될 수 있다.



### 상상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의 어느 부분에 계시를 인식하게 하실까. 다시 말해 선지자들이 비전(vision)을 인식하는 과정에 인간의 어떤 기능이 작 동하게 될까. 상상력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듣게도 하시고, 보게도 하시고, 읽게도 하시는 과정에 서 이 모든 감각은 상상력에 와서 통합된다. 성경께서 보여주시는 대목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선지자들은 주의 영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다. 상 상력은 하나님의 계시와 선지자를 연결하는 매개체이 며, 나아가 계시와 성도의 매개체이다. 상상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는 그저 글자에 지나지 않 을 것이다. 글자로 쓰여진 계시가 생동감 있는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될 수 있는 것 은 상상력이라는 매개를 통해 재현될 때 가능하다. 하 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이 상상력을 활용하지 않으 면 안 되게 이르셨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 은 단연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일 것 이다. 이 연설은 그 어떤 분명한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 고 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 아닌가. 그렇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보았던 비전이다(사 11:6-8). 수천 년 전 존재했던 선지자의 비전이 킹 목사에게 전 달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상상력 덕택이었다. 킹 목사 님의 상상력이 작동하였기에 이사야서가 기록을 넘어 사회 개혁이라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상상력의 공유는 신앙 영역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그 린데 지금의 성도들은 어떤일까.

### 상상력의 고품이 부른 혼란

상상력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한국 사회 를 예로 들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어떤 이 미지를 불러 일으켰을까. 대부분 영성과 연관되어 있 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 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다.”(시 121:1) 믿음의 조상들에게 산은 하나님의 임

재를 체험했던 호렙 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시온 산 등 믿음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산 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선하심을 상상했던 것이 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산마다 성당당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의 상징들이 세워지고, 지금은 값비싼 이 쿠르랜드 아웃도어가 경쟁적으로 산 본연의 이미지를 가리고 있지 않은가.

강은 또 어떠한가. 선지자들은 강을 바라볼 때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오직 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암 5:24) 물이 혼하지 않았던 유대 땅에 요단 강처럼 맑은 물을 실어 나르는 물줄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서 사해를 살리는 생명수로 보였던 것이다(겔 47 장).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지난 정권부터 시작된 대강 논쟁이 지금도 그치지 않고 불필요한 정쟁을 양산 하고 있으니, 강을 바라보는 이 나라 백성들에게 강의 이미지는 상상만으로도 머리 아픈 주제가 되어 버렸다. 이처럼 상상력은 한 사회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 속 에 살아 움직인다.

상상력은 개인으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특정한 의 미와 가치를 전달하는 네트워크 역할을 한다. 때로는 기대한 은유로, 때로는 크고 작은 상상을 생산하면서 사회 구성원 속으로 파고든다. 상상력이 특정 권력에 의해 지배당하게 되면 그것은 필경 비극으로 치닫게 된 다. 왜냐하면 상상력은 생태적으로 자유롭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상력을 장악한다면 국민 위에 군림하기 쉽 다. 친체주의, 군국주의가 시민의 상상력을 조작하려 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상상력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부정 혹은 긍정의 이 미지로 착상되어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에 영 향을 미친다. 극단적 예를 하나 더 든다면, 한강 다리 는 어떤가. 한강은 일제 시대 때 수탈의 도구로 인식되 다가, 6·25 전쟁 이후 기적의 다리로 탈바꿈한다. 이 러바 한강의 기적이 그것이다. 그러던 것이 90년대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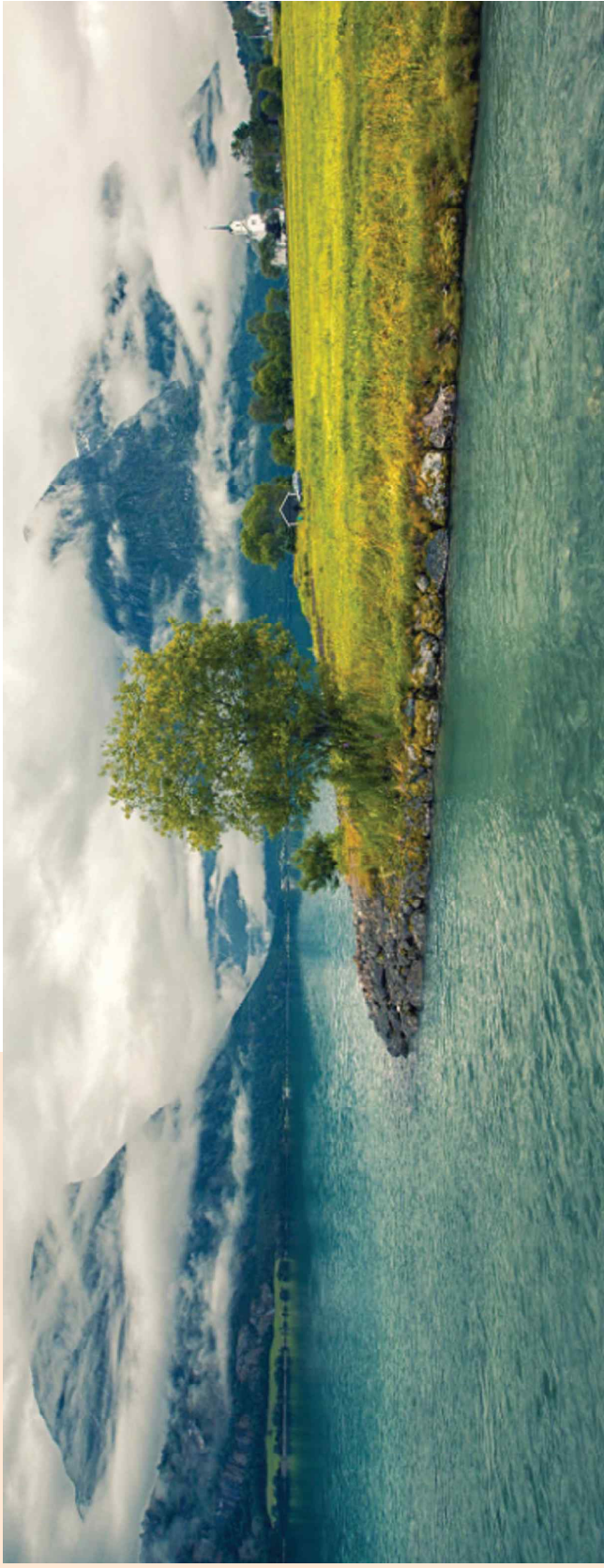


이 부정부패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수많은 피의자들이 시초동 검찰청으로 불려가다가 한강 다리에 이르러 몸을 던지는 사건이 터진다. 시민들의 뇌리에 한강 다리는 서서히 기억이나 발전 등과는 결별하고, 의혹, 비운, 죽음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확장되어 간다. 결국 한강 다리 여가자에게 자살예방을 위한 장치들을 설치하는 지경에 이르르게 된 것이다.

### 믿음과 상상력이 만나야 한다

연체부터인지 한국 기독교는 논리적이 되었다. 신앙에 있어 이성 중요하다. 그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이성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다. 그래서 나온 농담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물에 빠져도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입만 살아있기 때문이다.” 성경공부, 제자훈련, QT 등 너무 많은 것들이 일방적인 질의·응답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성경 독자로서 이성적 자아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 말씀의 감성, 상황의 재연을 느낄 틈이 없어지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느끼고 상상해서 나 의 것으로 체득하는 과정이 생략된다. 모든 성도들은 직선적, 탈말적 “믿습니까?”에 추궁당한다. 당장 “믿습니까”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자로 낙인찍히기 쉽다.

앞에서도 거론했듯 상상력은 믿음 생활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청소년에게 있어 그 중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신앙 때문에 상상력이 오히려 간파된 경우는 없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어떤 안티기독교 단체는 ‘기독교가 아동의 상상력을 저해한다’는 이론으로 아동의 성경공부 교육을 중지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학교 교육처럼 주입식 방법으로, 교사 중심의 신앙 교육에 골몰했던 과거 방식을 바꿔야 한다. 암기식 신앙은 미배가 없다. 믿음에 대한 명제적 선언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 상상하는 내면에 믿음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신앙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도 전인교육, 특기적성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새로운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면, 청소년 신앙교육에서도 시급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상상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말이다. 믿음 안에서 이성과 감성이 만나도록 상상력을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



성인 성도들에게도 상상력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신앙생활 수십 년이면 나름대로 연분이 쌓인다. 순기능적인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역기능적 요소도 부인할 수 없다. 상상력이 결핍된 경우라면 ‘플통보수’라는 소리를 듣기에 최악이다. 성경의 다양한 상황이나 남의 처지를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신앙의 편협후후군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처럼 수천 갈래 교단, 교파로 찢겨진 기독교 상황은 어디에도 없다. 교회 연합이 왜 이처럼 어려운가. 연합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믿는 자들이, 교역자들이나 평신도들 모두가 주 예수님의 몸 된 지체(고전 6:15)이며 출기의 가지(요 15:5)요 나라(벧전 2:9)임을 기억하고, 마지막 주님 재림의 날에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 하나 된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면(계 21:9), 어찌 연합이 그리도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상상하는 믿음은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상상력을 주셨다. 사람이 사랑답게 살 수 있도록 일반은총으로 상상력을 부여하셨다. 인류 문명의 진보도 여기에 기초한다. 그러나 또 다른 은총, 특별한 은총이 있듯, 상상력에도 특별한 상상력이 있다. 거룩한 상상력이다. 예를 들면 우리 동시대인들이 교회 침탈의 심자기를 보며 폭풍 길에 언제 떨어질까 불안해하는 그런 류가 아니라, 기록함을 느끼고 구원을 고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상력 말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러한 거룩한 상상력을 이 땅에 감동시키는 데에 있다. 예수께서 꿈꾸시던 그 나라와 그 의가 상상력을 통해 열방, 만백성에게 전해져 서로 공유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 문화의 생명이다. 기독교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단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어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M.A.)을,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대학교에서 독일 문어학과 신학을 공부했다(DR. PH.D.).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 하나의 나라의 확장을 믿는 믿음의 시명으로 살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 (amtaboo@hanmail.net)

문화는 복음으로 이 시대 시민들의 상상력에 세례를 주는 행위이다. 물이 바다를 맑음같이, 예수님의 친국 상상력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하나님께서 상상하시니 우리도 상상하노라.’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상상을 펼쳐 나가야 한다. 사회와 국가, 민족과 세계를 위한 거룩한 꿈을 상상할 때이다.